

# AOL 등 미국 브로드밴드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및 제휴 '성과'

## 넥슨, 액토즈 등 온라인게임업체 미국에서도 성공가능성 확인

지난 7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온라인게임업체와 미국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의 만남이 최초로 이뤄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만남은 미국 BCD 포럼(Broadband Content Delivery Forum)에서 이뤄졌으며, 국내 온라인게임의 우수성과 미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관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최근 아시아권 시장을 장악한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이 글로벌마켓 진출을 위해 미국시장을 제 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접촉이 쉽지 않았던 미국 굴지의 브로드밴드 기업들과 한자리에 모여 게임서비스 제휴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온라인게임이 기존에 EA나 UBI Soft 등 게임 퍼블리셔를 통한 수출을 모색하는데서 벗어나, ISP 및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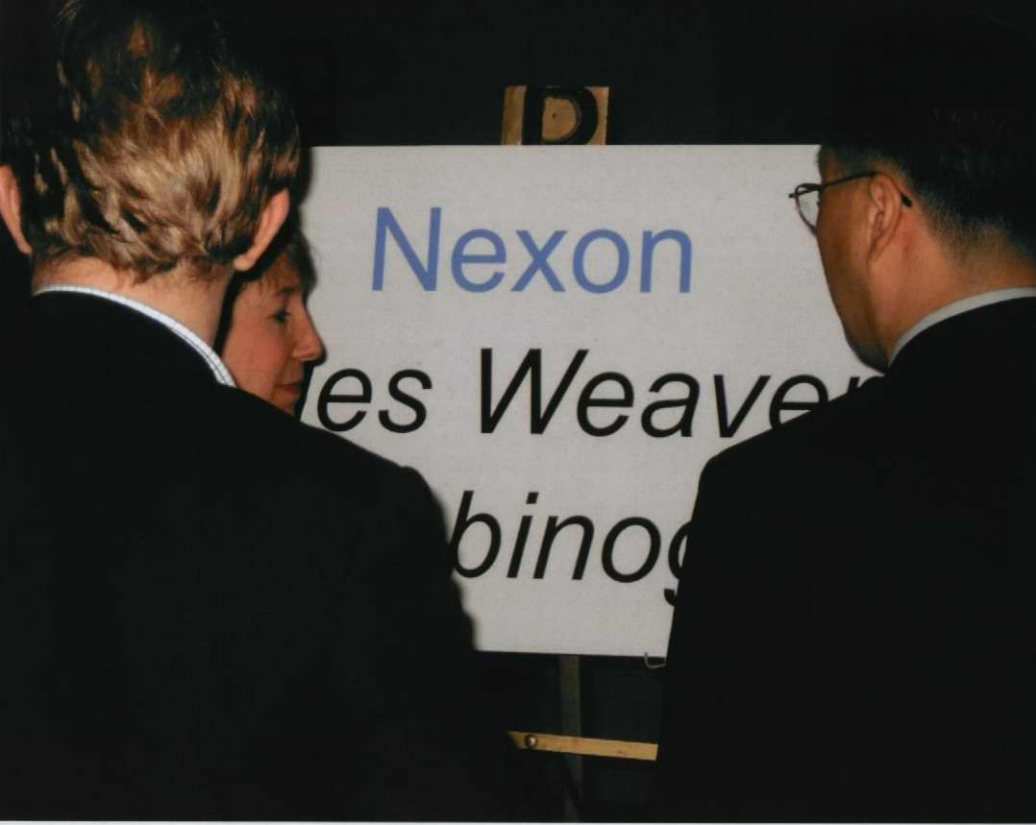
'BCD 포럼'은 미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인 포럼으로, 올해 2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브로드밴드 인

터넷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도 수익성이 악화된 미국 내 ISP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다는 주제아래 약 5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날 열린 포럼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브로드밴드 게임의 경향과 전망, 그리고 전송을 위한 각종 인프라'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브로드밴드 게임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게임의 수익성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발표가 이어져 분위기가 고조됐다.

한편, 11일에는 포럼을 통해 국내 온라인게임업체에 높은 관심을 보인 미국의 최대 포털업체인 AOL과 미국의 3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SBC, 그리고 캐나다의 3대 ISP인 BellCanada, Tellus 등 약 20여개 업체와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엔씨소프트, 넥슨,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등 국내 상위 온라인게임업체 8개사가 대거 참여해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켓의 교두보인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글로벌마켓 교두보 미국시장 진출 의지 확인

미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AOL 비즈니스 개발본부의 Minal J. Damani 디렉터는 “미국 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는데 한국의 온라인게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하고, 올해 안에 국내의 1~2개 게임을 런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국내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가 미국에서 직접 서비스하면서 동시접속자수가 2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메이저 기업과 제휴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번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주선을 통해 만난 AOL, SBC, BellCanada 등 브로드밴드 사업자들과 상담한 결과 향후 제휴 및 협력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미국시장에 국내 온라인게임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시뮬레이션 위주의 MMOG 게임 외에도 스포츠 게임, 캐주얼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현지버전으로 제작될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미국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가 2003년 3월 1,700만명에 이르고, 해마다 27%의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국내 온라인 게임의 미국시장 초기 진출이 향후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보고 현지기업과의 제휴 지원 및 시장조사, 현지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 〈참여업체 및 게임〉

- |                  |                     |
|------------------|---------------------|
| 1. 엔씨소프트 : 리니지 2 | 2. 넥슨 : 테일즈위버, 마비노기 |
| 3. 엠게임 : 나이트온라인  | 4. 액토즈소프트 : 프로젝트 A3 |
| 5. 이소프넷 : 코룸 온라인 | 6. 나코인터랙티브 : 라그하임   |
| 7. 시멘텍 : 헬브레스    | 8. 한빛소프트 : 탄트라      |

### 〈BCD Forum 소개〉 BCD Forum [www.bcdforum.org](http://www.bcdforum.org)

Sprint, Nortel, Alcatel, NTT 등을 비롯해 세계적인 브로드밴드 관련 사업자 60개 이상이 중심이 되어 2000년 4월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전 세계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술 및 응용분야를 패키지화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브로드밴드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럼이다.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BB 사업자로부터 실수요자에게까지 제공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분야(네트워크 솔루션, 과금 솔루션, 보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를 한 데 묶어 시연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